국방TV-육군본부 협업, 특별기획 '선택! 청년 DREAM 국군 드림' 페스티벌

의지 북돋는 '축제의 장'… 젊은 꿈과 미래 응원하다

'육군 최고의 꿈 사냥꾼' 찾기 4일 차
'건강한 습관' 분야 8개 팀 진출
장병 모바일 투표로 수상자 선정
이틀간 15만 명 동시 접속 서버 다운

24일 국방TV 특별기획 '선택! 청년 DREAM 국군 드림' 페스티벌 4일 차 '건강한 습관'편 생방송을 앞둔 육군 장병들. 이헌구 기자

'육군 최고의 꿈 사냥꾼'을 찾아라!
"청년 드림 국군 드림 페스티벌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건강한 습관을 길러주는 군'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최우수상에 도전하는 분들 만나봅니다."

2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국방TV 제1스튜디오. 방송인 조우종과 래퍼 키썸의 사회로 '육군 최고의 꿈 사냥꾼'을 찾는 4일째 여정이 시작됐다.

국방TV와 육군본부가 협업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오후 4시 생방송하는 '청년 DREAM 국군 드림' 페스티벌의 4회 본선 경연이 열린 것이다.

이날 생방송에는 소속 부대에서 '건강한 습관'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60사단 광고기획 동아리 '퍼스트코(First CO.)' 등 8개 팀 대표가 출전해 자신들이 직접 제작·출품한 3분 내외 영상을 소개하고, 그동안의 활동상과 성과를 공유했다. 방송인들도 어려워하는 생방송이었지만, 대표 장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 자부심이 가득했다.

9공수여단 '무한도전' 팀의 윤용덕 병장은 에디슨의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는 명언을 소개하며 군에서 습관화된 것을 평생 가져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알찬 군 생활을 만들어 가는 육군 장병들의 에너지 넘치는 이야기는 국방TV와 국방홍보원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만났다. 시청자들은 생방송 동안 인터넷 '나라사랑·iMND' 포털 서버에 접속, 건강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최고의 부대에 투표권을 행사했다.

생방송 3일 차인 23일까지 집계된 투표수만 23만4000표. 특히 1·2회가 방송된 지난 21일과 22일에는 15만 명이 동시 접속 가능한 '나라사랑·iMND' 포털 서버가 다운됐었다고.

육군본부 측은 "생방송 시간을 주간교육훈련 예정표에 반영, 야외훈련 부대를 제외한 대대급 부대 91%가 시청하고 내용을 공유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북돋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기대

'청년 DREAM 국군 드림'은 군 복무가 조국 수호는 물론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기간이 되도록 육군이 2018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사업이다. 'DREAM'은 학업 연장과 역량을 키워주는 육군(Developing Competence), 취·창업의 기회를 높여주는 육군(Raising Job Opportunities), 인성과 리더십을 키워주는 육군(Elevating Character & Leadership), 건강한 습관을 길러주는 육군(Advancing Health & habit),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는 육군(Materializing noble Values)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추진 분야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온 것이다.

3년 차인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청년 DREAM 국군 드림' 페스티벌은 사실 육군본부가 1년 전부터 야심 차게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해 3분 내외 동영상을 공모했다. 그 결과 육군 각급 부대 장병들이 직접 'DREAM' 분야별 동아리 활동과 우수 실천 사례를 담은 동영상 700여 편이 접수됐다. 그 가운데 174편이 군단급 부대 심사를 통과했고, 육군본부 심사위원단이 분야별로 8편씩 총 40편을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했다.

본선 심사는 정책 추진 방향, 공감지수, 아이디어, 작품 완성도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심사위원 점수 40%, 모바일 투표 60%가 반영됐다. 매회 '동아리 활동'과 '우수 실천 사례' 2개 부문으로 나눠 최우수상 총 10개 팀, 우수상과 장려상 총30개 팀을 뽑아 육군참모총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군단 최정예전투원 선발 부대'인 육군2기갑여단은 무려 10개 팀이 본선 진출해 '학습역량 분야'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면서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확실한 자기개발 보장이 전투력과 부대원들의 군 생활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육군본부 청년 DREAM 국군 드림 TF장 이준희(49·학사23기) 대령은 "'청년 DREAM 국군 드림' 정책이 단순한 장병 개인의 자기개발에 그치지 않고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확대해 우수 자원 확대와 새로운 군 문화 조성 등을 통해 복무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숙 기자

적극행정으로 국방운영 체계 혁신 선도한다

국방부·국가보훈처
적극행정 실천과제 우수사례 발표
"국민들 체감할 성과 창출 위해 노력"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24일 열린 제39회 차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발표는 상반기 '코로나19 적극행정' 성과에 이어 남은 기간 '경제, 민생, 포스트 코로나' 등의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국방부 박재민 차관은 이날 국방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국방운영 체계 혁신 △비전통 위협 대응 △방산기업 지원 등 국방부 적극행정의 주요 실천과제와 관련된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국방 운영체계 혁신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 시범사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혹한기 훈련 중 군 전투력을 향상한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어 비전통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수호한 사례도 설명했다. 소개된 사례는 그간 감염병 및 재난 분야를 국방의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해 지방자치단체 요구 시 소요 파악 후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관례를 벗어나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해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요 골자였다.

특히 사상 최장의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 시 '찾아가는 대민지원' 부스 운영과 수해 복구 지원 신청·접수·승인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등 전방위적 패키지 지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끝으로 박 차관이 소개한 우수 사례는 방산업체 유휴시설 유지자금에 대한 융자기준 개선이다. 그동안 방위산업 유휴시설 가동률 산정기준이 전년도 매출액으로 설정돼 코로나19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피해 업체들은 신속한 융자지원이 어려웠다. 국방부는 이를 현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개정함으로써 올해 발생한 유휴시설도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차관은 "국방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킴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이남우 차장이 발표했다. 이 차장은 그동안 보훈처가 중점 추진한 '국가 책임성 강화'를 바탕으로 국가입증방식 다양화를 통한 국가유공자 권익 보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 기준 개선, 위탁병원 대폭 확대를 통한 근접 의료서비스 강화 등의 사례를 차례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6·25 참전국에 방역 마스크 지원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중지 절차 개선 △개인별 맞춤형 보훈서비스를 한곳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는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통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비대면 보훈선양 활동 사례 등도 함께 발표했다.

이 차장은 "한 박자 빠른 적극행정이야말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공직사회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